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 초등고학년 힐링 독서지도안 —

허 정 희

수원정자초등학교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 초등고학년 힐링 독서지도안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5학년·6학년)만 되어도,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신체의 변화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생이 과연 과거 청소년보다 더 많이 성숙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장단계에 따른 청소년기의 진입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5년 3월 25일 경상매일에 보면, ‘자살 연령 갈수록 낮아져…초등생 30% “고민한 적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 2014년 12월 17일 영남일보에 보면 “게임 그만해” 다그치자 13세 조카가 고모 살해’라는 기사가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폭력도 점점 더 나이가 어러지고 심지어 같은 반 친구가 폭력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는 외양적 성장만 했을 뿐 내적 성숙은 이루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보다 더 빨리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초등학교 중학년(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체적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청소년기를 조금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2. 프로그램 구성

- 기 간 : 2015. 7. 18 ~ 10. 24 (총 12차시)
- 운영 시간 : 매주 토요일 10:00 ~ 12:00
- 참여 대상 및 인원 : 초등 3~6학년, 15명 이내
- 운영 장소 : 초지작은도서관

3. 자료 선정 기준

- 힐링스토리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예측 가능한 여러 상황의 문제를 다룬 일정한 줄거리를 담은 글로 100가지 주제의 100편의 힐링스토리 중 자아 성장 (정체성 혼돈, 대인관계, 감정 조절, 자아개발, 자기중심적, 고민, 중요한 사람, 나의 단점, 문제해결방법, 진로, 자기정체성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힐링스토리로 선정한다.
- 1차시 도서 : 「엄청나게 큰 병아리」,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여, 병아리(or 곰)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있는 학생에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 2차시 도서 : 「난난난」, 「눈썹 올라간 철이」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위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여도 자신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자신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활동을 통해 이 외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점이 좋은지 새롭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 3차시 도서 : 「감정을 숨기는 찬이」, 「눈물바다」의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여 감정 조절을 잘 한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 지는데, 「감정을 숨기는 찬이」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고, 「눈물바다」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두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정 조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4차시 도서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의 주인공은 자신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만을 보다가,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 도서인「나일 수 있는 용기」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감과 의욕을 갖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도서를 통해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5차시 도서 : 「치킨 마스크」는 잘하는 것이 없는 친구에게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도서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직 낯설고 어렵겠지만, 진실 된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좋은 도서이다. 진실 된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주고, 부족한 점을 보강해 보자.
- 6차시 도서 : 「책 씻는 날」은 고통이 나의 성장 원동력(관계 개선)이 될 수 있음 깨닫게 해주어서 선정하였다. 「책 씻는 날」의 주인공은 원치 않았지만 아둔한 머리로 인해 배움이 더딤니다. 아둔한 머리를 탓하고 공부를 하지 않기보다 더 많이 노력하여 훗날 이름을 떨치는 학자가 됩니다.
- 7차시 도서 : 「내 이름은 자가주」, 「큰 늑대 작은 늑대」는 우리 곁에 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깜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도와주는 도서이다. 「내 이름은 자가주」에서는 부모님의 중요함을 「큰 늑대 작은 늑대」에서는 친구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책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이렇듯 중요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을 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이다.
- 8차시 도서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가 너무 싫어서 친구를 물리치는 방법을 아빠에게 배웁니다. 아빠는 주인공에게 특별한 방법을 전수하였는데, 그 방법은 그 친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둘이 친한 친구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9차시 도서 : 「빨강이 어때서」의 주인공은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줄 친구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10차시 도서 : 「작은 걱정」과 「내 꼬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걱정거리 때문에 도통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할뿐,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이 책들은 타인의 눈에는 별 것이 아니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크고 힘들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을 통해 자신의 걱정거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도울 수 있다.
- 11차시, 12차시 도서 : 「시크릿」은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은 위한 성공의 비밀이 담긴 책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위대한 사상가, 과학자, 개척자, 창조자들에게는 위대한 비밀이 있다. 비밀을 파헤치며 학생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선정하였다.

4. 운영 방법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고학년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총 12차시고, 회기 당 120분씩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기성장의 단계는 보통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개방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1차시에서 4차시까지의 자기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5차시와 8차시는 자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는 자기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춘기 정체성 확립을 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활동으로는 힐링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추가로 선정된 도서를 읽고 그 차시의 주제에 맞게끔 학생들을 이끈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참가자 모두가 작품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고,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 k-HTP는 동적-집·나무·사람 검사로, 한 장의 종이 위에 집, 나무, 사람을 함께 그리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세계를 알아보는 투사적 검사 기법이다. 이 그림을 통하여 참여자의 연령과 그림을 고찰하여 지적인 면과 정서 및 사회적인 성숙도를 밝히는 일이 가능하다. 그림의 상징성에서 자신의 과거경험과 현재의 욕구를 바탕으로 반응하며 보통 때와 다른 경우 무의식중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 검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를 알아낸다.
- KSD는 동적학교생활화라는 그림으로, 참여자의 학교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성은 괜찮은지 여부를 그림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검사 역시 프로그램 사전·사후 비교를 통하여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자기성장검사는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에 대해 묻는 검사지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 사전·사후에 나눠주어 체크하도록 하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6. 프로그램 세부 계획

차시	주제	세부목표 및 선정자료	활동내용
1	내가 누구인지 아니?	◎ 목 표 : 프로그램의 소개와 자기소개 ◆ 자 료 ✎ 힐링스토리 「엄마, 나는 누구예요?」 📖 「엄청나게 큰 병아리/ 카스 그레이브스 / 푸른숲」 📖 「난 꿈인 채로 있고 싶은데/ 요르그 뮐러 / 비룡소」	- 프로그램 소개 - k-HTP, KSD - 자기성장 검사 - 우리들의 약속 - 나의 단점 터트리기
2	친구 속의 나는?	◎ 목표 : 나의 모습 적기와 친구들 속의 나의 모습을 알아본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눈 깜빡이는 아이」 📖 「난난난/ 영민/ 국민서관」 📖 「눈썹 올라간 철이/ 전미화/ 느림보」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잘난척쟁이 경시대회 - 가족체계진단 변형 하여 그림 그리기
3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는?	◎ 목표 :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나, 건들지 맙!」 📖 「감정을 숨기는 찬이/ 마굿 선더랜드/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눈물바다 / 서현 / 사계절」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의 성격 알기 - 그림 돌려 그리기 - 신문방망이 만들고 나의 단점박스부수기
4	내가 생각하는 나는?	◎ 목표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고 발표할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나 궁금하단 말이야!」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 / 버나드 와버 / 보물창고」 📖 「나일 수 있는 용기 / 도메니코 비릴라 / 고래이야기」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에게 편지쓰기 - Self-box만들기 - 작품 소개
5	내가 본 너는	◎ 목표 : 친구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 찾아줄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내 자리에서 비켜!」 📖 「치킨 마스크/ 우쓰기 미호 / 책읽는곰」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에게 필요한 가면 만들기 - 가면에 대한 의견 나누기
6	내가 받은 선물과 고통	◎ 목표 : 친구가 나에게 준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놀리지 맙!」 📖 「책 씻는 날/ 이영서 / 학고재」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 - 나의 성장 원동력이 되려면 -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역할극하기

차시	주제	세부목표 및 선정자료	활동내용
7	내게 중요한 사람	◎ 목표 : 현재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 줘」 📖 「내 이름은 자가주 / 켄틴 블레이크 / 마루벌」 📖 「큰 늑대 작은 늑대 / 나딘 브링코슴 / 시공주니어」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기 -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표현하고 주고 싶은 선물을 그려줌
8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 목표 : 친구의 싫은 점을 인식하게 하고, 그 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이런 친구들은 어때?」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 데릭 먼슨 / 정글짐 북스」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쁜 놈 리스트 - 나쁜 놈 파이를 만들어 나쁜 놈의 장점을 발표하고 시식하기
9	나만의 개성을 찾아 (나의 손)	◎ 목표 :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개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 「빨강이 어때서 / 사토 신 / 내인생의책」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의 손》 만들기를 통해,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발표하기
10	걱정은 나누면 반	◎ 목표 : 자신의 걱정거리를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 줄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여빠질테야」 「눈만 감으면 게임이 보여요」 📖 「작은 걱정 / 안느 예르보 / 중앙출판사」 📖 「내 꼬리 / 조수경 / 한솔수북」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의 고민 적기 - 추상화로 표현하기 - 친구의 문제 해결하기
11	미래의 내 모습을 찾았어요!	◎ 목표 :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 📖 「시크릿 / 론다 번/ 살림」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기분전환 목록 만들기 - 감사목록만들기 - 나의 롤모델 그리기 - 자아성장사후검사
12	나는 어떤 사람일까?	◎ 목표 : 함께 한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는 재확인하고, 앞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 ◆ 자 료 ✎ 힐링스토리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대!」 📖 「시크릿 / 론다 번/ 살림」	- 힐링스토리하부르타 - 나의 좌우명 - 나에게 힘이 되는 말 - 프로그램소감문작성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내가 누군지 아니?	차시	1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프로그램 소개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규칙을 만들고, 그림검사와 검사지를 작성한다.				
선택 자료	▶ 힐링스토리 : 「엄마, 나는 누구예요?」 ▶ 도서 : 엄청나게 큰 병아리/ 카스 그레이브스/ 푸른숲/ 2011 ▶ 도서 : 난 곰인 채로 있고 싶은데/ 요르그 뮐러/ 비룡소/ 1977				
준비물	힐링스토리, 자아성장검사지, K-HTP질문지 외 활동지, A4용지, 4B연필, 거울, 풍선 외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 프로그램 참가자와 진행자 인사하기 -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들리니?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에 이끌어 갈 000입니다. - 오늘부터 우리는 12차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 힐링스토리 「엄마, 나는 누구예요?」 읽기 - 힐링스토리 「엄마, 나는 누구예요?」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내가 아닌 행동을 한 경우가 있나요? - 친구들 중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있나요? -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주었으면 하나요?				
전개 (60')	◎ 프로그램 내용 소개와 규칙 안내 - 이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맞이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목적을 잘 이루었으면 합니다. - 집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므로 모이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 집단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거나 화장실 등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이 공간 안에서는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망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이 공간에서 나가 한 회기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주기를 바랍니다.				

	·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야기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 이상의 약속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빈 종이에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고,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 자기 소개하기 - 학년, 반, 이름, 특징 혹은 별명을 넣어서 가볍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 〈활동지 ②〉 자기 성장 검사지를 나눠주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K-HTP 그리기 - A4용지를 나눠 줍니다. 나눠 준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종이 위에 집,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려 주세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릴 때는 막대 모양의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주세요.” - 종이 뒤편의 〈활동지 ③〉 K-HTP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KSD 그리기 - A4용지를 나눠 줍니다. 나눠 준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릴 때는 막대 모양의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주세요. 모두가 무엇이든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당신 자신도 그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용지의 뒤편의 〈활동지 ④〉 KSD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엄청나게 큰 병아리」 읽고 나의 단점을 터트리기 - 풍선에 자신의 단점을 쓰게 합니다. 다트에 풍선을 붙인 후 단점을 터트리게 합니다. - 자신의 단점을 터트렸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정리 (10')	㉠ 첫 만남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자아존중감 - 자아정체성】

엄마, 나는 누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 경은이는 오늘도 6교시 수업이 끝나고 2시 30분에 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이상하게 슬퍼요. 집에는 경은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방긋한 얼굴로 맞이해줄 거란 거도 알고 존경하는 아버지도 경은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고 하시는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아는데요. 요즘 정말 그냥 갑자기 힘이 없고 슬픈 생각만 듭니다.

“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 거지?”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생긴 거지?”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경은이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경은아, 집에 같이 가자.” “경은아, 오늘 라이프에 수영하러 가자.”

라고 하는데 그런 권유에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아냐, 됐어. 나 집에 갈래.”

경은이는 발길을 돌리면 바로 슬픔에 잠깁니다. 집에 가는 길이 가장 슬퍼요. 멍하게 터벅 터벅 걷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기도 해서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반겨주시는데도 경은이는 그것도 귀찮았어요. 경은이는 사춘기가 아닌 거 같은데 무엇인지 몰라 걱정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엄마가 반갑게 맞아 줍니다.

“경은이 왔니? 오늘은 어땠어? 친구들과하고는?”

“엄마,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야? 나 얘기하기 싫어. 내 방에 들어갈 테니까 건들지 마.”

경은이는 갑자기 맘에 없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방을 잠그고 슬픈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경은이는 소심한 성격도 아니었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자신이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만 했어요. 갑자기 너무나 슬퍼서 울고 싶기도 하고, 막 무엇이랄도 부수고 싶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미쳐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누구예요? 엄마,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싶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경은이 엄마는 뜬금없는 질문에 멍하니 경은이를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경은아, 걱정할 거 없어. 엄마도 그랬는걸.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엄마도?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야.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경은이는 엄마를 신기한 눈으로 말뚱말뚱 쳐다보고 엄마에게 바짝 다가섭니다.



우리들의 약속

학교 학년 반 이름 :

나는 《들리니?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꼭 참석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입니다.
2. 나는 《들리니?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인격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3. 나는 《들리니?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활동 내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들을 밖에 나가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 4.
- 5.

2015 년 일 일

서약자 : (인)

활동지 ②

자기성장검사

학교 학년 반 이름 :

☆ 다음은 자기이해에 대한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2	나는 내가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잘 모른다.					
3	나는 나에게 맞는 일이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른다.					
4	나는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5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 다음은 자기수용에 대한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지금의 나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유감)이 없다.				
2	나는 내가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				
3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4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5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7	남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속상하지는 않다.				
8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 여러분이 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에게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 말한다.					
2	나는 친구에게 내가 한 일 중 죄책감을 느끼는 일에 대해 말한다.					
3	나는 친구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말한다.					
4	나는 친구에게 나의 가장 깊은 감정들을 이야기한다.					
5	나는 친구에게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한다.					
6	나는 친구에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7	나는 친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한다.					
8	나는 친구에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9	나는 친구에게 내가 한 일 중 자랑스러운 일들을 말한다.					
10	나는 친구에게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부모님, 형제 등)에 대해 말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번호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아는 편이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9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10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민감성)은 빠른 편이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온정적이다.					
12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이나 태도는 개방적이다.					
1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운 편이다.					
15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체로 친근감을 느낀다.					
17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다.					
18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일치가 안 될 때 잘 해결하는 편이다.					
19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끌어 간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좋은) 느낌을 잘 표현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싫은)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한다.					

활동지 ③

K-HTP 질문지

학교 학년 반 이름 :

1	먼저, 그림을 그린 순서를 그림 위에 숫자로 기록하여 주세요. 예) 1 2 3
2	그림 속이 계절은 언제인가요?
3	그림 속의 날씨는 어떤가요?
4	그림 속의 시간을 기록하여 주세요.
5	그림 속의 사람은 누구 인가요?
6	그림 속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7	그림 속 인물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8	그림 속의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9	그림 속의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0	그림 속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단점:
11	그림 속 집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12	완성한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느낌)을 적어주세요.
13	완성한 그림의 작품명을 적어주세요.

활동지 ④

KSD 질문지

학교 학년 반 이름 :

1	먼저, 그림을 그린 순서를 그림 위에 숫자로 기록하여 주세요. 예) 1. 연필 2. 꽃 3. 책
2	숫자 옆으로 누구이고,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예) 1. 연필 잡은 손 2. 꽃 3. 책
3	그림 속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어주세요.
4	그림에서 자신이 없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으세요.
5	그림에서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적어주세요.
6	친한 친구인데, 미처 그림에 그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7	무엇 때문에 그림에 그리지 못했을까요?
8	그림 속에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9	그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10	그림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11	완성한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느낌)을 적어주세요.
12	완성한 그림의 작품명을 적어주세요.

 활동지 ⑤

엄청나게 큰 병아리

1. “엄청나게 큰 병아리!”에서 기억나는 장면을 적어주세요.

2. 우리 반,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좋아하는 이름을 모두 적어주세요.
(사람, 사물 모두 가능)

3. 작은 수탉, 작은 암탉, 좀 더 작은 암탉, 제일 작은 암탉에게 병아리라고 불리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써주세요.



K-HTP와 KSD 실시 시, 주의사항과 해석하기

1. 용지의 방향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며, 시간제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의 이름은 별도로 기록해 둔다.
2. 그리는 도중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라고 하고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전체적 평가 : 그림의 전체적 인상, 조화, 구조, 이상한 곳은 없는지에 주목한다. K-HTP에서는 참가자가 그림 속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KSD에서는 참가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얼마만큼 성숙하였는지, 신체상의 혼란은 없는지, 자기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지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4. 내용분석 : 무엇을 그렸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내용분석에서는 명백하고 큰 특징을 먼저 다루고, 그림 뒤면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K-HTP에서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의 감정을, KSD에서는 참가자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본다. 아울러 KSD에서 그림 속 등장 인물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 학습하는 모습을 그렸을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업적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학교생활 중의 일과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그리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 각자가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참가자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5. 형식적 분석 : 어떻게 그렸는지 보는 것이다.
 - 가. K-HTP의 그리는 순서
 - 1) 나무를 먼저 그린 경우 생활에너지와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2) 집을 먼저 그린 경우 가정 및 집이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 가) 세상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
 - 나) 신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신체육구 혹은 강박관념을 나타낼 수 있음
 - 다)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집은 성공이나 혹은 성공에 대한 열시를 보여줌
 - 라) 양육을 위한 가정, 양육을 주고받기 위한 가정, 창조적이고 즐거운 장소
 - 3) 사람을 먼저 그린 경우에는 본인이 지향 하는 바 이상적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
 - 가) 세상에 대한 소속감의 통제와 관련된 관심, 신체를 드러내거나 혹은 숨김
 - 나) ‘성공’을 보여 주거나 혹은 ‘성공’에 대한 경멸
 - 다) 양육적인 사람, 즐겁게 주고받는 사람
 - 라) 만일 자신 이외의 사람을 그리면 특별한 사람(참가자에게 의미 있는 사람)
 - 예> 좋은 가족 구성원, 사랑하는 사람, 매우 친한 친구, 증오하는 사람, 특정 인물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을 반영

나. K-HTP 그림 내에서 집·나무·사람의 거리(부착 정도)

- 1) 집·나무·사람의 조화를 보는데, 집·나무·사람이 서로 부착되어 그려진 경우에는 참가자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 2) 나무와 사람이 붙어 있고 집이 떨어져 있다면 집보다 일을 선호하는 것
- 3) 사람과 집이 붙어있고 나무가 떨어진 경우에는 가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학생이므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다. KSD 그리는 순서

- 1) 그리는 순서(크기)에 따라서 참가자에게 중요한 사람 순서로 그려지는 것
- 2) 만약에 선생님을 먼저 그렸다면 선생님이 참가자에게 의미 있는 사람
- 3) 만약에 친구를 먼저 그렸다면 참가자에게 그 친구가 의미 있는 친구
- 4) 본인을 먼저 그렸다면 자신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5) 인물상의 크기는 크기가 클수록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가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임
- 6) 인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그려진 것은 공격적 성향이나 과장, 부적절한 보상적 방어에 감정, 과잉행동을 의미
- 7) 인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은 그림은 열등감, 무능력감, 혹은 부적절한 감정, 억제적이고 소심함을 나타냄

라. 인물상 간의 거리 : 참가자가 본 학급 친구들 간 혹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친밀성 정도나 심리적인 거리를 반영하는 것. 인물상이 겹쳐지거나 접촉되어 있을 때 두 개인 간에 친밀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반대로 거리가 먼 두 인물상 간에는 실제생활에서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소원한 경우가 많음

마. 인물상의 생략 : 학교에서 구성원인 선생님과 친구 중에서 혹시 생략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적의나 공격성,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수 있음. 또한 인물상을 지운 흔적은 지워진 개인과의 양가감정(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감정) 또는 갈등이 있는 것임을 시사 함. 그림의 등장인물을 그릴 때 일부를 뒷면에 그리는 경우 그 사람과의 간접적인 갈등을 시사 함.

바. 사용된 상징

- 1) 공격성, 경쟁심 : 공, 축구공, 그 밖에 던지는 물체, 빗자루, 먼지털이개
 - 2) 애정적, 온화, 희망적 : 태양, 전등, 난로 등의 열과 빛이 적절한 때 (빛이나 열이 강렬하고 파괴적일 때는 애정이나 양육의 욕구, 증오심을 나타냄)
 - 3) 분노, 거부, 적개심 : 칼, 총, 날카로운 물체, 불, 폭발물 등
 - 4) 우울감정, 억울함 : 물과 관계되는 모든 것, 비, 구름, 바다, 호수, 강 등
6. 그림을 완성 한 후, 전체 그림에 대한 이해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 질문을 하여 기록해 두도록 한다.

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18일 (토요일) 10:00~ 12:00	1. 인사하고 프로그램 소개 및 설명 -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아성장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힐링스토리 「엄마, 나는 누구예요?」스토리텔링 3. 프로그램 내용 소개와 규칙 안내 - 전체 12차시를 내용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게 진행되기 위한 규칙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4. 자아성장사전검사와 K-HTP검사 - 검사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5. 「엄청나게 큰 병아리」읽고 나의 단점을 터트리기 6.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안내			총 12명
자체평가	첫 만남의 첫 시간은 어떤 차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배우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래서인지 자기이해와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개방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어 힐링스토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했다.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인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가볍게 질문하부르타를 접목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격려도 하였는데 첫 수업임에도 적극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져 내심 놀랐다. 「엄청나게 큰 병아리」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병아리의 이야기로 살아가면서 나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재미있는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첫 수업, 첫 만남에서의 수업은 서로가 최선을 다해 임하는 학생을 만난 즐거운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힐링스토리는 수원지역 사서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상황별로 수집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창작한 것이라 소개한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친구 속의 나는?	차시	2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나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 친구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눈 깜빡이는 아이」 ▶ 도서 : 난난난/ 영민/ 국민서관/ 2014 ▶ 도서 : 눈썹 올라간 철이/ 전미화/ 느림보/ 2009				
준비물	고정관념ppt, 활동지, 4절지, 크레파스, 색연필, 매직펜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힐링스토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 힐링스토리 「눈 깜빡이는 아이」 읽기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성연이는 무엇 때문에 눈을 깜빡이었나요? -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팀별 질문지를 만들고 대답하는 질문하부르타 - 하부르타의 의미를 알려주고 질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팀별 질문지 중 의미 있는 질문을 상대팀에게 질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전개 (60')	◎ 도서 「난난난」 읽기 - 주인공 엄마의 말에 주인공의 모습은 어떤가요? - 만약 엄마가 나에게 “왜 이것도 못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주인공이 잘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나는 어떤 것을 하나요? - 너무 당연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활동지 ①〉 잘난 척쟁이 경시대회를 완성하여 봅시다. ◎ 도서 「눈썹 올라간 철이」 읽기 - 책 속 주인공 철이처럼 속상한 날이 있었나요? - 그렇게 속상한 날에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 철이 결의 성배씨는 철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 철이 결의 성배씨처럼 나에게도 성배씨가 있나요? -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작성한 〈활동지 ①〉 잘난척쟁이 경시대회를 큰 소리로 발표합니다.				

	◎ 말없이 그림 그리기 작업 - 이제부터 모두가 함께 하나의 미술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책상 위의 크레파스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서로 완전히 다른 색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 지금 나눠드리는 전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선택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단,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말을 하지 않고 참가자 모두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 작품이 완성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작품명을 결정하여 봅시다. ◎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림 그리기 - 다시 나눠드리는 전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선택한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참가자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작품이 다 완성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작품명을 결정하여 봅시다. ◎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림을 그릴 때, 누가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나요? -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할 때,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였나요? -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은 어떤 것인가요? - 색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무엇 때문에 색이 잘 보이지 않게 그려진 것일까요?”, “자신의 색이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를 물어봅니다. - 집단원 각자의 위치는 어땠는가? (중앙, 끝, 구석) - 만일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변화를 촉진했는가? - 각자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가?(역동성) - 어느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는가? - 작업 형태는 협동적, 개별적 혹은 비협조적이었는가?	
정리 (10')	◎ 힐링스토리 질문 중 의미 있는 질문 생각해보기 ◎ 이번 차시에 대한 정리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건강 - 성장(스트레스)】

눈 깜빡이는 아이

2학년 성연이는 공룡과 한자, 역사에 아주 관심이 많은 남학생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땐 가끔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를 입어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는 스타일이어서 혼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대로 표현 못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드디어 일이 생겼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친구를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성연이는 어느 날부터인지 눈을 깜빡이고, 손톱을 뜯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친구가 나를 협박해.”

“뭐? 뭐라고?”

“친구가 나를 112에 신고해 버리겠데. 나 그 친구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도 될까?”

“.....”

엄마는 어이가 없어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쁜 말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못하는 착한 성연이었어요. 여느 아이들 같으면 벌써 그 친구를 한 대 때리고도 남았을 것을 성연이는 참고 또 참았던 것이었어요.

“성연아 언제부터 그 친구가 너에게 그런 말 했어?”

“2학년 되어서.”

“왜 말을 하지 않았어?”

“엄마, 걱정할까 봐. 엄마 바쁘잖아. 나 괜찮아.”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펄펄 울고 맙니다. 그제야 눈 깜빡임과 손톱 뜯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성연이의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해서 소아정신과와 놀이치료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시작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성연아, 엄마 일을 매우 잘해서 회사에서 휴가 췌어.”

“정말? 엄마 그럼 나랑 놀자.”

“그래, 오늘은 엄마가 성연이 데리러 학교 갈까?”

“와, 엄마 최고!!”

엄마는 담임선생님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연이를 괴롭히는 친구 부모와도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엄마,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마.”

“왜?”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 근데 성연아, 엄마가 서운해지려고 하네. 치”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놀랍게도 성연이의 눈 깜빡임과 손톱 뜯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마는 남자아이의 교우관계는 조금 거칠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엄마의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유독 긴장되는 자리에선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도 엄마는 성연이가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활동지 ①

잘난 척쟁이 경시대회

학교 학년 반 이름 :

✎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 있게 써 보세요.

1. _____

2. _____

3. _____



참 고 자 료

가족체계진단에 대한 이해

가족체계진단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가족미술치료 상황에서 치료자가 내담자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탐색도구로 사용하는 미술과제로써 가족에게 상호작용의 경험을 하도록 해 준다. 비록 1회의 면접일 경우에도 치료자는 집단형태와 마찬가지로 가족체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수 있다. 가족이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는 일에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각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는 관찰 가능한 것으로, 치료자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평가할 수 있다.

- 1) 목표
접수면접이나 상담초기에 가족관계나 부부,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역동이나 동맹, 권위 등을 파악한다.
- 2) 준비물
전지, 4절 켄트지, 8절 켄트지, 크레파스나 매직펜 등
- 3) 방법
 - ① 가족 전원이 하나의 미술작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내담자들이 미술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면, 미술활동이 가족집단을 검사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가족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각각의 가족은 독특하므로 자기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러한 가족원의 표현을 통해 가족원 각자의 고유한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해 주어서 내담자들을 더욱더 촉진시킨다.
 - ② 전지와 다양한 매체를 제공한다(종이는 전지를 제공하나 가족원이 다른 크기에 종이를 원할 땐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③ 세 가지의 지시사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 가) 팀별 비언어적 공동화
지시문 : “가족을 두 팀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다양한 색깔의 크레파스 중 한 가지 색을 선택하여 말하지 않고,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세요.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서로 의논하여 제목을 붙여 보세요.”라고 지시한다.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지시를 하면서 다음의 작업을 제시한다.
 - 나) 비언어적 가족 공동화
지시문 : “전 가족이 한 장의 종이에 함께 작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원하는 색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말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단지 완성된 작품에 제목을 붙일 때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다) 언어적 가족 공동화
지시문 : “전 가족이 한 장의 종이에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색깔은 한 가지만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후 의논하여 제목을 붙여 주세요.”

- ④ 위의 세 가지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치료자는 가족원이 매체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그림에서 누가 먼저 시도하는지 등을 체크한다.
 - ⑤ 가족원들이 그림을 완성 한 후에 각자의 그림에 대해 표현하도록 한다.
 - ⑥ 가족원 각자의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치료자는 가족들의 협동화를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한 부분에 대해 가족들에게 피드백 한다.
- 4) 상담과정으로서의 적용
- ① 누가 그림을 처음 시작했으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 시작하도록 이끈 과정은 무엇이었나?
 - ② 구성원들 중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참가했는가?
 - ③ 어느 구성원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어느 구성원의 제안이 무시되었는가?
 - ④ 각자의 개입정도는 어떠했는가?
 - ⑤ 미술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 ⑥ 누군가의 그림 위에 다시 첨가함으로써 처음 사람이 한 것을 ‘지워버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 ⑦ 어떤 형태의 상징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누가 이것을 시도했는가?
 - ⑧ 구성원들은 교대로 했는가? 집단으로 했는가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가?
 - ⑨ 각자의 위치는 어떠했는가? (중앙, 끝, 구석)
 - ⑩ 만일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변화를 촉진했는가?
 - ⑪ 각자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가?(역동성)
 - ⑫ 각자의 부담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⑬ 어느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는가?
 - ⑭ 누가 추종자 혹은 반응자였는가?
 - ⑮ 정서적 반응들이 있었는가?
 - ⑯ 가족의 작업 형태는 협동적, 개별적 혹은 비협조적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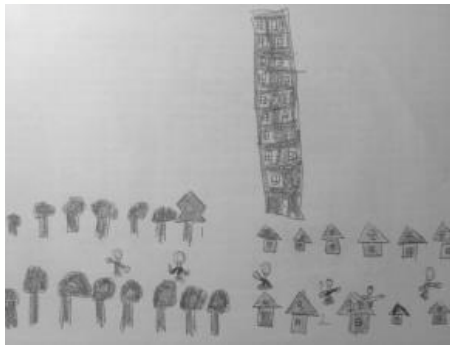
치료자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가족체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자아의 강약, 가족 내에서의 가족의 역할, 의사소통유형 그리고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치료자가 내담자 가족에게 가족 역할에 대해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은 자신들의 가족패턴을 살펴볼게 된다. 면접이 끝나기 전에 치료자는 가족체계의 유지를 위해 관찰한 것은 언급해야 하고, 언어적으로 진술한 상호작용의 평가는 완성된 시각적인 작품을 통해 더욱 명백해진다.

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25일 (토요일) 10:00~ 12:00	- 힐링스토리 「눈 깜빡이는 아이」 읽고 질문하부르타 1차시 수업을 되돌아보고 힐링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하였다. 팀별로 질문지를 나눠주고 팀별 질문을 뽑게 하여 좋은 질문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 도서 「난난난」, 「눈썹 올라간 철이」 읽기 - 질문하부르타 중 논제가 도출되어 팀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 말없이 그림 그리기 작업 - 말없이 선택한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그리되 언어적 비언어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했다. -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림 그리기 - 조별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나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느끼도록 질문을 한 뒤 그 조별로 작품을 설명하였다.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총 10명
자체평가	자기성장검사결과 통합점수(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대인관계)가 높은 학생은 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의 통합점수가 낮은 학생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적으로 자기수용을 제외하고 자기이해와 자기개방 대인관계 중심의 내용을 수업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힐링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으며, 질문하부르타 중에 논제가 도출되어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작품속의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를 자신의 모습을 되보는 듯하였다. 두 번째 낮선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으로 수업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생각을 깨우기 위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10분을 소요하여 전달하여서인지 더욱 수업의 적극성을 띄었다.			

1~2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는?	차시	3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나의 성격을 알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할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나, 건들지 마!!」 ▶ 도서 : 「감정을 숨기는 찬이/ 마곳 선더랜드/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 도서 : 「눈물바다/ 서현/ 사계절/ 2009」				
준비물	성격유형ppt, 신문, 8절지 도화지, 신문지, 박스테이프, 단점 박스, 12색 크레파스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다른 친구, 가족에게 잘 보여주었나요? ◎ 힐링스토리 「나, 건들지 마!!」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지훈이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요? - 지훈이처럼 화를 내는 친구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지훈이는 어떤 성격인가요? -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힐링스토리로 개인별 질문하부르타 - 팀별인 아닌 개인별로 생각나는 질문을 모두 적게 합니다. - 그 질문 중에 내용이 깊고 생소한 질문을 선택합니다. - 모둠별로 질문하부르타를 진행합니다.				
전개 (60')	◎ 성격에 대하여 ppt 이용하여 알아보기 - 성격의 의미를 알아보고 에니어그램과 MBTI의 다양한 성격 중 나는 어떤 성격인지 알아봅니다. - 콤플렉스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콤플렉스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도서 「감정을 숨기는 찬이」 읽기 - 찬이가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것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 멧새의 "거기서 벗어나려면, 네 감정들을 꺼내놓아야 해."라는 말을 들었을 찬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나요? - 자신의 감정을 꼭꼭 눌러 담는다고 해서 속상하고, 두렵고 화난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하는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 찬이에게 나타난 멧새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나요?				

	◎ 도서 「눈물바다」 읽기 - 어떤 때, 책 속 주인공처럼 속상한가요? - 책 속 주인공처럼 속상한 날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책 속 주인공처럼 눈물바다가 생길 정도로 속상했던 날이 있었나요? - 책 속 주인공처럼 눈물을 펄펄 흘려 본 적이 있나요? - 책 속 주인공처럼 눈물을 펄펄 흘리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그림 돌려 그리기 - 모두에게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 원하는 색의 색연필을 들고, 2분간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 오른편의 친구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넘겨줍니다. - 넘겨받은 그림을 이어서 1분간 그리고 다시 오른편의 친구에게 그림을 넘겨서 그림이 한 바퀴가 돌아서 자신에게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자신의 감정(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친구에게 친구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라는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에서 10번까지 친구가 있다면, 10번 친구에게 1번 친구의 그림을 망치도록, 1번 친구에게는 2번 친구 그림을 망치도록 미션을 줍니다. ◎ 신문지 방망이 만들기 [활동놀이] -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나쁜 성격과 나의 단점을 모두 쓰게 하여 박스에 붙이게 합니다. - 폐지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폐지에 낙서하고, 찢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후,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방망이를 만듭니다. - 완성된 방망이로 친구들과 칼싸움 비슷하게 하던지, 책상을 신나게 두드리든지 하여 방망이가 망가질 때까지 신나게 두드립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정서 - 화】

나, 건들지 마!!

점심시간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에 왁자지껄합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점심 먹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이때 지훈이는 같은 반 친구인 경석이에게 소리쳤어요.

“야, 네가 뭔데 거기 앉아 있어? 일어나!”

경석이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게 네 자리야?”

“내가 아까부터 밥 먹고 있던 자리란 말이야, 빨리 꺼져!”

하며 급식실 내의 아이들 모두가 놀랄 만큼 큰소리를 내며 의자를 발로 차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자리가 네가 돈 주고 샀느냐? 네 자리라고 표시라도 했어?”

“이게 미쳤나? 안 일어나? 너 한 번 죽어볼래?”

둘의 싸움은 계속 이어졌고,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싸움이 심각해지자 주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선생님이 뛰어오셨어요.

“어머, 애들아! 왜들 이러니? 그만해.”

선생님은 의자가 뒤집혀 있고 난장판이 된 주변을 보고 놀라서 일단 싸움을 말렸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애가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밥 더 가지러 간 사이에 앉았던 말이 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아니면 무엇을 올려놓던가?”

지훈이와 경석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금세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렸어요.

조금 지나자 지훈이 담임 선생님도 오셨어요. 경석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생님, 자리를 누가 맡아 놓았는지 몰랐어요. 내가 모르고 앉은 건데 이 난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고!”

급식실이 떠나가라, 또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가득 찬 급식실에서 지훈이가 밥을 더 가지러 간 사이에 경석이가 지훈이 자리인 줄 모르고 앉았고 돌아온 지훈이는 자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급식실 전체가 놀랄 만큼 큰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소동을 벌인 것이었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혼자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감정 제어가 되지 않아 장소나 사람 관계없이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사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유리창을 깨뜨리는 난폭성을 보일 때도 있는 5학년 남자아이예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의 폭력 행동 때문으로 어머니는 지훈이가 어렸을 때 가출한 상태이고 아버지는 지훈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살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아이입니다. 경제적인 면도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할머니 밑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로 야단을 맞으며 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훈이가 담임선생님은 안타깝지만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안 지훈이는 그래도 담임선생님 말만은 잘 들으려고 애씁니다.

“지훈아, 선생님이랑 나가자.” 결국, 지훈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3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1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나, 건들지 마!!」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 주인공 지훈이의 성격과 화를 내는 이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했다. 2. 힐링스토리로 개인별 질문하부르타 3. 성격에 대하여 ppt 이용하여 알아보기 4. 도서 「감정을 숨기는 찬이», 도서 「눈물바다」 읽기 5. 그림 돌려 그리기 6. 신문지 방망이 만들기 [활동놀이] 7.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총 10명
자체평가	자신의 감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에니어그램 및 MBTI 성격유형을 접하게 하여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음을 알렸는데 학생들은 공감하는 눈빛이었다.. 힐링스토리의 토론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학생들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접할 때마다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특히 콤플렉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 놓은 과정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성격유형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려보는 그림에 집중함이 물어났다. 하지만 소중한 것이 사라질 때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친구들을 보며 가슴이 따듯해졌다. 자신의 단점을 쓰는 것을 거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박스에 붙였으며 가장 강력한 방망이로 번갈아가며 두드릴 때 속 시원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힐링이 된 시간이었다고 전했으며 수업을 진행하고 뿌듯했다.			
기타 의견	하부르타는 예시문을 주고 팀별로 한 문장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뽑도록 하였는데 질문의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 놀랐다.			

3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차시	4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나 궁금하단 말이야」 ▶ 도서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 / 버나드 와버/ 보물창고」 ▶ 도서 : 「나일 수 있는 용기/ 도메니코 바릴라/ 고래이야기」				
준비물	고정관념ppt, 냅킨아트 준비물(냅킨, 바탕제, 붓, 스폰지, 보석 및 악세사리, 드라이기, 활동지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보냈나요? - 우리 모두 별을 그려 볼까요? ◎ 힐링스토리 「나 궁금하단 말이야」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지은이처럼 궁금한 것이 많았던 적이 있나요? - 지은이처럼 끝없이 질문하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나에 대한 궁금증이 지은이처럼 끊임없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 나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이봐, 나! 이것이 궁금해!! - 나에 대한 궁금증을 편지지에 적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봅니다.				♡ 학생이 베스트 질문을 뽑아 팀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전개 (60')	◎ 도서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읽기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의 하마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이는 때를 이야기 해 보세요.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의 하마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의 하마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이 다 채워진다면, 어떤 기분(생각)이 들 것 같나요? ◎ 도서 「나일 수 있는 용기」읽기 -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모습)에 두려움을 가져 본 적이 있나요? - 여자 친구 중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없나요? - 남자 친구 중에 책읽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나요? - '여자는 어때야 한다.' 혹은 '남자는 어때야 한다.'의 기준이 있나요? - 나는 그 기준에 다 맞나요? -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 다양한 냅킨 아트를 준비한다. ♡ 나의 상자를 만드는 동안 나의 몸이라 생각하고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해 보았나요? - “자연에는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고, 서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특별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다운 거야. 우리도 자연의 일부야! 우리는 모두 특별하니까 모두 소중한 사람인 거지.”라는 말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 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나를 받아들이도록”해 본 적이 있나요? ◎ 나에게 쓰는 편지!! - 미래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 냅킨아트를 이용한 Self-box만들기 -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눈을 감고 먼저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같은가요? 친구와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 다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외양적인 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 중에 동의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주세요. - 보물상자를 꺼내주세요. - 보물상자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깥은 참가자의 외면으로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표현하도록 하고, 박스 안 쪽은 자신의 내면으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내 안의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준비해 온 선물상자를 꾸미세요. - 자신이 완성한 박스를 한 명씩 발표를 합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외면과 내면을 나눠서 꾸민 것을 이야기하고, 왜 그것을 그렇게 꾸몄는지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 친구가 소개하는 Self-box를 듣고·보고, 발표한 친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발표한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발표한 친구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것 중에 알려주고 싶은 좋은 점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자아존중감 - 자아개발】

나 궁금하던 말이야.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은이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아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꼭 확인합니다.

“엄마, 문 잠갔어요?”

“그럼, 누구 명령인데.”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간섭하고 질문하는 지은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나 낳을 때 많이 아팠어?”

“엄마, 여자가 좋아? 나 여자로 왜 태어났어? 나는 여자인 게 싫어.”

“엄마, 나 아기가 되면 좋겠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

“엄마, 언니는 왜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

잘 놀다가도 갑자기 달려와서는 눈이 동그랗게 뜨고 엄마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만날 늦게 와?”

“엄마, 귀신 봤어? 어떻게 생겼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정말 귀신은 발이 없어?”

한동안은 또 귀신 얘기만 하더니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도 무서워서 언니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엄마를 불러서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곤 얼마 안 있다가 귀신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에 관해 묻곤 합니다.

“엄마, 사람은 왜 죽어? 그럼 나도 죽어?”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뭐하고 살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자 지은이는 표정이 심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른의 표정으로 편지를 전합니다.

‘엄마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언니랑 사이 좋게 지낼게요.’라고요. 부모님은 그렇게 성장하는 지은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 “엄마의 엄마지. 외할머니.”

“아니, 엄마는 지은이가 제일 좋아.”

“날 위해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나도 엄마가 제일 좋아!”

지은이는 엄마의 품 안에 안겨듭니다. 지은이는 갑자기 어른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엄마한테 다가와서 말합니다.

“엄마,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어찌지?”

엄마랑 언니는 지은이 말에 배꼽을 잡고 방안을 뒹굴니다. 아빠도 애써 웃음을 참아 보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은이의 사랑 타령도 하루 만에 끝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는 적응되었는지 학교에서 갔다 오면 계속 학교 얘기만 합니다. 엄마는 학교 얘기만 하는 지은이를 보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요새는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음…….”

지은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약간 쑥스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합니다.

“엄마, 받아쓰기 점수 어떻게 하면 잘 받아?” 엄마는 지은이가 매우 예뻐 꼭 안아 줍니다.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나 궁금하던 말이야!!

이 름 :

질문①

질문②

질문③

질문④

◎ 질문하부르타 토론 후 생각 남기기

--



4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8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나 궁금하던 말이야」 스토리텔링 -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수집하여 만든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2.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힐링스토리에 대한 베스트 질문을 뽑아 팀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3. 이봐, 나! 이것이 궁금해!! - 자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쓰고 답을 한 뒤 한 가지씩 발표하였다. 4. 도서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 도서 「나일 수 있는 용기」 소개 5. 나에게 쓰는 편지!! 6. Self-box만들기 - 자신의 모습을 나답게 꾸미되 겉뿐만 아니라 상자 안에도 무엇을 채울 것인지 깊이 생각보고 만들었다. - 나의 Self-box를 발표하였다. 7.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총 9명
자체평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하여 모두 별을 그려보았지만 두 명을 제외하고 별모양이 똑같았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학생들의 수업의 임하는 자세가 좋아짐이 관찰되었다. 질문의 양이 보통 5문에서 평균 15문제로 늘었다. 생각과 질문의 폭이 깊어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질문에 접할 기회가 되었으며 논제도 도출되어 지은이의 궁금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도서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였다. 친구들은 self-box를 만드는 동안 침묵이 오랫동안 흐를 만큼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자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발표하여 자기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즐겁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하고 있어 고맙고 행복한 수업이었다.			
기타 의견	라포형성이 이루어져 낯선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4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내가 본 너는…….	차시	5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친구의 모습을 보고, 친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찾아줄 수 있다. ○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를 선물해 봅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내 자리에서 비켜!」 ▶ 도서 : 「치킨 마스크 / 우쓰기 미호 / 책읽는곰/ 2008」				
준비물	가면, 아크릴물감, 물통, 붓, 외 활동지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nadage 나다운 모습으로 즐겁게 보냈나요? ◎ 힐링스토리 「내 자리에서 비켜!」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민석이의 모습은 어떤가요? - 민석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요? - 민석이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 민석이의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진행 - 각자 질문을 적어보고 좋은 질문 3개를 뽑게 합니다. - 2명이 한 팀이 되어 교대로 질문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 두 팀 중 한 모둠의 한 팀씩 뽑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전개 (60')	◎ 나에게 필요한 가면 만들기 - 「치킨 마스크」를 읽어줍니다. - 대화 속에서 나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친구가 필요로 하는 재능을 생각하여 보세요. - 어떤 가면을 쓰고 싶은가요? - 준비되어 있는 도안이 아닌 다른 동물 마스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친구는 재료를 받아서 만듭니다. - 다 완성이 되었다면, 나에게 왜 이 가면을 선물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친구에게 가면을 건네줍니다. - 친구에게 받은 가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가면 발표하기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성격 - 독단적]

내 자리에서 비켜!

민석이는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얻은 귀한 늦둥이였다. 1학년 입학식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참석하여 담임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바 있다. 입학식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90도로 인사를 하여 담임선생님도 적잖게 당황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민석이는 반 아이들과 잦은 충돌이 생겼다.

하루는 민석이 짝꿍인 다혜가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 민석이가 때렸어요.”

“민석아 다혜를 왜 때렸어? 친구를 때리면 되니?”

민석이에게 물어보자 민석이가 몹시 화가 나서 대답했다.

“여기까지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넘어오잖아요”

“글씨를 쓰다 보면 자꾸 넘어가요”

“책상에 글을 그어 놓고 친구한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야. 반대로 다혜가 민석이한테 그러면 좋겠어?”

담임선생님이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러나 민석이는 화가 난 듯 말했다.

“나는 누가 내 자리 차지하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급에서 1교시 끝나고 우유 마시기, 3교시 끝나고 도서관에 다녀오기 등 학급 규칙 정해 놓고 규칙 지키기를 해도 민석이란 따로 행동하였다. 2교시가 끝나고 혼자 도서관에 뛰어가서 대출하고 와서 반 아이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하였다. 그래서 학급 규칙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편식이 심해서 배식을 받을 때 선생님과 한바탕 소동이 이루어진다.

“저는 오이 싫어하는 음식이라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김치도 안 먹어요.”

“민석아, 오이도 김치도 안 가져가면 오늘 무슨 반찬으로 먹으려고 해? 일단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해”

“싫어요. 토할 것 같은 말이에요.”

“민석아,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맛있어서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아.”

“전 안 참을 거예요. 먹기 싫어요!”

“선생님, 민석이 안 먹으면 저도 안 먹을래요. 저도 김치 싫어요.”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점심시간만 되면 담임선생님과 민석이는 전쟁한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배식조차 받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과 형평성으로 담임선생님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입학식 때 민석이는 결혼하고 한참 만에 생긴 늦둥이라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심각하다. 민석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아서 예절지도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오산이었다. 민석이가 혼 날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민석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다는 엄마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담임선생님은 민석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까 봐 매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5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22일 (토요일) 10:00~ 12:00	1. 인사 및 서약하기 - 다시 한 번 서약한 내용을 읽게 하였다. 2. 힐링스토리 「내 자리에서 비켜!」 스토리텔링 - 읽지 않고 직접 스토리텔링을 하여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돋게 했다. 3.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진행 - 팀별로 진행되던 하부르타에서 2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하부르타를 실시했다. - 이 때 서로에게 질문을 끊이지 않고 오래 하도록 했다. 4. 치킨마스크를 읽고 나에게 필요한 가면 만들기 5. 가면 발표하기 6.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총 9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 민석이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왜 민석이는 그랬을까?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왜 민석이는 싸우는 것일까? 왜 마음대로 하는 걸까? 왜 애들은 잘해주면 못된 아이가 될까? 왜 규칙을 어기는 것일까? 외에도 민석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또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민석이는 어떤 친구가 될까? 그런 나쁜 행동은 언제부터였을까? 등 깊이 있는 질문들이 도출되었다. 스스로 이유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학생 자신이 지니고 있던 나쁜 습관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치킨마스크를 읽어주었을 때 그림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신기해했다.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멋진 자신을 만들어줄 가면을 숨죽여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 차시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전달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기타 의견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도출되었다.			

5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내가 받은 선물과 고통	차시	6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선물일수도 고통일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선정 자료	▶힐링스토리 : 「놀리지 마」 ▶도서 : 「책 씻는 날 / 이영서 / 학교재/ 2011」				
준비물	힐링스토리, 도서, 활동지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내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한 친구가 있나요? 나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였나요? ◎ 힐링스토리 「놀리지 마」스토리텔링 - 은비와 같이 이름 또는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이름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은비는 어떻게 해야 근빈이가 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 내가 만약 은비라면, 근빈이에게 어떤 사과를 받고 싶은가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좋은 질문을 쓰고 답을 직접 쓰도록 합니다. - 짝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봅니다. - 나와 다른 대답에 체크를 합니다. - 좋은 질문을 뽑아 팀별 하부르타를 진행합니다. ◎ 상처주는 말과 행동 활동지 작성 ◎ 상처주는 말과 행동 체험하기				
전개 (60')	◎ 도서 「책 씻는 날」 읽기 - 몽담이는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는데, 태어날 때 하늘이 몽담이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나요? - 아버지가 “저 아이가 저리 둔하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그것이 오히려 대견스럽네. 우리 집에서 저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는 걸 본 적이 있나?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몽담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몽담이는 훗날 뛰어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몽담이에게 과연 어떤 것을 선물하였다고 생각되나요? - 하늘에서 받은 선물로 지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만약 태어날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받고 싶은가요?				
정리 (10')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놀림】

놀리지 마!

이 이야기는 5학년 학생 은비가 경험한 이야기야. 은비는 몸이 작고 허약해. 그리고 얌전한 편이야. 은비가 5학년 1학기 때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친구와 근빈이가 은비를 밀치면서 말을 했어.

“좀비가 밥을 먹네? 조은비?”

은비를 좀비라고 놀리는 거야. 좀비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말이야. 이름이 조은비여서, 빨리하면 좀비라며 말이야.

“너 좀비지?”

“아니라고~ 내가 왜 좀비냐? 내가 좀비면 너도 좀비잖아?”

“어라? 좀비가 뭐라 그러는 거지?”

“.....”

이때까지도 은비는 참고 있었어. 워낙 자주 놀리니까 말이야. 근데 방석을 뺏어 가는 거야. 그러고는 은비의 방석을 찢고는 밟기 시작했어.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재밌는 거.”

그렇게 말하면서 방석을 급식 국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방석은 은비가 아끼는 거였기 때문이야. 은비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은비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계속 놀리면서 이제는 은비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였어. 갑자기 아파졌어.

“흑흑흑!!!”

그때 선생님이 그 광경 보시고 놀라서 말씀하셨어.

“야 유근빈, 그만하지 못해! 하지 마!!”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셔도 근빈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괴롭혔어. 그러더니 근빈이는 화를 못 이겨서 사물함을 뒤져서 물건을 던졌어. 은비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교실이 떠나가게 크게 터트렸어.

“으앙~~~”

그동안 근빈이를 비롯한 몇 명 남자친구들이 방석을 뺏어가서는 서로 돌리고 좀비라고 놀려서 울곤 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근빈이랑 은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담실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잘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는 거야. 2학기가 끝날 때까지 1학기 내내 계속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놀렸어.

“좀비? 지질하게 일러바치느냐? 어?”, “야, 좀비? 좀비도 공부하느냐?”

일부러 선생님 없을 때 더 놀리고 계속 때렸어. 그때마다 은비는 울었어. 우는 수밖에 없었어. 울어야 놀리는 것을 멈추니까 말이야. 은비는 정말 괴로웠어. 조은비이란 이름도 정말 싫고 이름을 지워준 엄마 아빠도 원망스러웠어. 그렇게 시간이 갔어. 그 놀림은 새 학년 6학년이 돼서야 멈췄어. 지금 은비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괜찮아요. 게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었어요.”

 활동지 ①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친구들이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 주세요.

학년 반 번

이름 :

2015 년 월 일



상처 주는 말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상처 주는 행동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8월 29일 (토요일) 10:00~ 12:00	1. 인사하고 서약하기 - 인사를 하며 벌과 파리 이야기로 하나의 생각에 고정되지 않도록 생각을 열게 했다. 2. 힐링스토리 「놀리지 마!」 스토리텔링하기 - 이름 또는 외모로 놀리는 경험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3.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질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답을 쓰고 질문하고 토론하였다. 4.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역할극 진행하기 -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적어보고 상처 주는 말을 직접 들어 보았다.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공유했다. 6. 6차시 중간 책거리 - 6차시 지난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자음퀴즈를 진행하고 과자파티를 열었다.			총 10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당당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놀림을 당한 경험들이 쏟아져나왔다. 힐링스토리가 학생들을 동일시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누구나 상처를 주는 경험도 상처를 받는 경험도 모두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스스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된 수업이었다. 6차시를 돌아보며 중간 책거리를 진행하였다. 가위바위보 물먹기, 아카시아잎을 이용한 자연놀이, 그동안 수업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자음퀴즈를 팀별로 진행하였다. 그동안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하며 과자파티를 열었다. 자음퀴즈 진행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아 즐겁게 수업을 마쳤다.			
기타 의견	고통이 나의 성장 원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시간이 부족하여 모두 진행을 못해 아쉬웠으나 최대한 빠르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내게 중요한 사람	차시	7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현재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다. ○ 중요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정 자료	▶힐링스토리 :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줘!」 ▶도서 : 「내 이름은 자가주 / 틴 블레이크 / 마루벌/ 2005」 ▶도서 : 「큰 늑대 작은 늑대 / 나딘 브링코슴 / 시공주니어/ 2008」				
준비물	힐링스토리, 도서, 활동지, 잡지, 가위, 풀, 4절 도화지, 색연필, 싸인펜,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누군가의 행동(말)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죠? 친구의 생각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 현명한 친구들이길 바라요. ◎ 힐링스토리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줘!」스토리텔링 -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 기준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매번 부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민수처럼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친구를 보면 어떤가요? - 민수와 같이 나를 잘 돕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나요? - 민수처럼 나를 잘 배려해주고,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 주변에 민수와 같이 고맙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질문지에 질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답을 쓴다. -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발표한다.				
전개 (60')	「내 이름은 자가주」 표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가주」는 누구일까요? ◎ 도서 「내 이름은 자가주」 읽기 - 부부에게 소포로 배달 온 「자가주」는 부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 자가주가 새끼 대머리독수리로 변했을 때, 부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자가주가 새끼 코끼리로 변했을 때, 부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자가주가 멧돼지로 변했을 때, 부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 자가주가 아주 못된 새끼웁으로 변했을 때, 부부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 자가주가 매일매일 바뀔 때, 부부는 무엇을 바랐나요? 왜 그걸 바랐을까요? - 자가주가 예의 바르고 말끔한 청년이 되었을 때, 부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자가주가 예쁜 아가씨와 친해지고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질 때, 부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자가주에게 부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싶다고 부부를 찾아왔을 때, 부부가 펠리컨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자가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 책의 '자가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 나는 '자가주'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가요? - 나의 부모님이 자가주의 부모님처럼 커다란 갈색 펠리컨으로 변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 부부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 자가주에게 소중한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 도서 「큰 늑대 작은 늑대」 읽기 - 책표지에서 둘은 어떤 보이나요? - 큰 늑대가 오래전부터 언덕 위 나무 아래 혼자 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큰 늑대 곁으로 작은 늑대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 둘이 언덕 위 큰 나무 아래에서 함께 있을 때, 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큰 늑대가 나뭇잎 이불 끝을 조금 밀어주었을 때, 작은 늑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큰 늑대가 하는 행동을 작은 늑대가 함께 할 때, 큰 늑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큰 늑대는 무엇 때문에, 작은 늑대에게 나뭇잎 이불을 조금 밀어주고, 먹을 것을 조금 더 따서 주었을까요? -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어떤 마음인 것일까요? - 큰 늑대는 산책을 가면서 중간 중간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 나에게 큰 늑대와 같이 나를 생각 해 주고, 배려해주는 친구가 있나요? - 내 마음 속에 작은 늑대처럼 걱정이 되고, 잘 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 작은 늑대가 사라졌을 때, 큰 늑대는 어땠나요? - (나무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늑대도, 커다란 늑대도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았습니다.) 큰 늑대는 무엇 때문에 슬펐을까요? - 큰 늑대는 무엇 때문에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을까요? -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자 본적이 있나요? -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작은 늑대처럼 이렇게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 《내게 중요한 사람》 만들기 - 두 권의 책에는 모두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권에는 부모님, 다른 한 권에는 친구.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소중한가요? -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 잡지에서 내게 소중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나, 소중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 찾은 이미지에, 큰 늑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그림을 그리거나, 잡지 이미지에서 찾아 붙여 봅시다. -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인가요? -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 쑥스러워서 혹은 너무 가까워서 제대로 표현을 못 하지 않았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미지 옆에 예쁘게 적어 봅시다. - 모두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 한 뒤,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보도록 합니다.	
정리 (10')	㉠ 수업을 하면서 느낀 생각 나누기 ㉡ 가족은 무엇인지 의견 나누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건강 - 장애(신체장애)】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 줘!

기준이는 근무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준이 형이었던 기철이도 같은 병이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무력증에 걸리면 힘도 없게 되고, 별로 놀지 않았는데도 피곤합니다. 더욱 심해질 때는 밥 먹기까지 곤란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삼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엄마는 오늘도 기준이를 데리고 학교에 옵니다.

“기준아, 오늘도 잘 지내고 엄마가 점심시간 지나서 데리러 올게.”

“엄마, 빨리 와. 밥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기준이는 예전에 화장실을 못 가서 교실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가 일보고 빨리 올게.”

교실에 도착한 기준 엄마는 기준이를 제자리에 데려다주고 학급 아이들에게 매일 인사를 합니다.

“애들아, 오늘도 우리 기준이랑 잘 지내. 부탁한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떤 친구들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마침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선생님은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황급히 빠져나가는 기준이 엄마를 지켜봅니다.

점심시간 몇몇 친구들이 기준이의 휠체어를 밀며 급식실로 갑니다. 뛰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몇 번이나 부딪칠 뻔했습니다. 사실 기준이의 휠체어를 미는 민수도 가슴이 여러 번 철렁했어요.

“애들아!! 조심해야지 부딪치면 기준이도 다치지만, 너희도 다친단 말이야!! 기준아, 괜찮아? 큰일 날 뻔했잖아. 너희 바보야?”

“난 괜찮아. 다른 아이들도 괜찮지? **민수야! 고마워.**”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사 정신이 정말 뛰어난 아이입니다. 민수는 기준이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민수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힙니다.

“야!! 쑥스럽게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하 밥이나 먹자. 화장실은 아직 안 가도 되는 거야? 급하면 내가 같이 가 줄게.”

“응. 아직은 괜찮아. 그리고 오늘은 엄마도 일찍 오신다고 했어.”

“그래? 그럼 빨리 먹자.”

사실 기준이는 지금 살짝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더는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분히 도와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오실 겁니다. 기준이는 또 힘이 빠집니다. 친구들에게 불편을 줘서 미안하지만, 친구들의 도움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는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 얼굴을 보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준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친구들아, 고마워.”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줘!!

이 름:

질문①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②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질문③

질문에 대한 내 생각 :

질문에 대한 친구 생각 :



7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9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몸이 불편해, 친구야 도와줘!」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는 실제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수집하여 창작한 이야기임을 상기시켰다. 2.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3. 도서 「내 이름은 자가주」 읽기 - 자가주가 변해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학생의 의견을 물어 가며 책을 읽어주었다. 4. 《내게 중요한 사람》 만들기 -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소중한 사람에 주고 잡지에 없는 선물은 그려주도록 했다. 5.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고 발표하기 6. 다음 차시에 대해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총 9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간접경험을 통해 예방적 차원으로 개발되었다. 7차시 힐링스토리의 또래집단의 이야기를 내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좋은 질문을 가려내는 과정을 지나 짝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준이를 친구들은 장애인으로 생각할 것인지, 근무력증에 걸린 이유는 유전적인 것인지 아닌지, 기준이는 놀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어 논제를 찾기에 수월했다. 내 이름은 자가주의 도서를 읽어주는 내내 학생들은 즐거워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정하고 잡지를 이용한 콜라주를 만들고 발표를 했다. 이 시간은 자기개방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가족을 소개하는 자기 개방관련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족을 선택하였다. 발표 시 소중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따스해진 수업이었다.			
기타 의견	한 명의 친구가 이사를 갔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을 전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차시	8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자신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생각해본다. ○ 싫어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음을 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이런 친구들은 어때?」 ▶ 도서: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데릭 먼슨/ 정글짐북스/ 2012				
준비물	힐링스토리, 활동지, 딸기잼, 호두파이, 사과잼, 젤리, 필기도구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여 행복한 한 주를 보냈나요? 한 주간 좋아하는 사람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은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싫은지 이야기 해 볼까요? ◎ 힐링스토리 「이런 친구들은 어때?」 스토리텔링하기 - 누더이처럼 선을 긋는 친구들이 있나요? - 싸우기 싫어서 은주처럼 참아 본 경험 있나요? - 은주라면 은주와 다르게 해결할 건가요? 아님 똑같이 싸울 건가요? - 은비와 수빈이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싸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걸까요? - 만일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면 당연히 맞설 건가요? 아님 싸움을 피할 건가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 친구들의 감춘 모습을 찾아내는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 질문을 찾고 짝토론을 하며 최선을 다해 수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 나와 다른 의견을 발표하여 나와 다른 의견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전개 (60')	◎ 도서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읽기 - 제러미 로스가 주인공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 나는 제러미 로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어떻게 생각했나요)? - 제러미 로스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과연 나의 생각과 같을까요? - 나는 제러미 로스에게 ‘나쁜 놈 파이’를 어떤 의미로 주고 싶었나요? - 나는 제러미 로스와 단둘이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엄청 친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했나요?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 아빠는 나에게 ‘나쁜 놈 파이’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 누군가가 한 행동(말) 때문에 상처 받은 적이 있나요?				

	- 그 친구의 행동(말)이 내가 생각한대로 나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 친구의 생각과 다른 의미로 생각해서 친구를 오해해 본 경험이 있나요? -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친구가 준 고통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친구가 준 고통(행동 or 말)으로 내게 좋았던 일을 이야기 해 봅시다. ㉠ 나쁜 놈 파이 만들기 - 나쁜 놈 목록을 작성하고 그 친구와 먹을 수 있는 나쁜 놈 파이를 만들어 봅시다. - 친구에게 어떤 것이 든 파이를 줄 것인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 나쁜 놈과 맛있는 파이를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친구들과 파이를 먹게 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학교 - 친구 - 다름】

이런 친구들은 어때?

수업시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들어 볼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모둠활동이야기예요. 모둠으로 6명이 정해졌는데요. 누던이가 모둠의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무것도 이 선 넘게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모둠의 선이 어디 있냐?” 갑자기 누던이의 행동에 당황한 은주가 애기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러더니 책상 위를 왔다 갔다 하고 발로 선을 넘어서 밟고는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그어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누던이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야, 너 왜 마음대로 하는데? 빨리 안내려가?”

“내 마음인데~”

“뭐? 너 진짜~ 빨리 안내려가. 드럽단 말이야!!!”

드디어 담임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마디 하셨어요.

“누던야, 은주야, 너희들 왜 싸우고 그래? 싸우지 말고 잘 지내.”

그런데 누던이가 갑자기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가 그랬잖아? 흑흑흑” 은주는 너무 황당했어요.

“선생님 그 거 제가 한 거 아니예요. 누던이가 먼저 금을 긋고 시비 걸었던 말이에요?”

세상에 어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까요? 은주는 너무 황당해서 울고 말았어요.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친구. 정말 싫어요. 누던이를 무찌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짝공과 모둠활동 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짝공 수반이가 금을 그었어요. 짝공 은비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금을 그은 거예요. 그리고 수반이가 말했어요.

“야, 이 선 그어놔는데 뭐든 넘어오면 내 꺼다~”

“그래, 마음대로 해.”

“야, 연필 넘어 왔다. 내가 가진다.”

둘째 쉬는 시간에 수반이 연필이 은비에게 넘어 갔어요. 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반이의 연필을 가져갔어요. 수반이는 은비의 행동을 보고 완전 놀랐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비 필통을 빼앗아 갔어요. 은비는 수반이의 행동이 정말 싫었어요.

“야, 너 왜 필통을 가져가는데? 빨리 안가지고와?”

“그럼 너도 연필 내놔.”

그래서 그냥 줬어요.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수반이가 은비 핸드폰을 뺏어간 거예요. 화가 나서 은비는 수반의 필통을 또 뺏아왔어요. 그랬더니 수반이가 은비의 교과서를 뺏어갔어요. 결국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남자가 치사하게 왜 그러는데? 빨리 안내놔. 참부터 네가 금 거 놓고 그랬잖아? 어?”

“은비가 수반이에게 대들었어요. 그 때 수반이가 은비의 뺨을 때렸어요.”

“짜!!”

“으앙..” 결국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났어요. 그리고 둘이 남아서 나머지 청소를 해야 했어요. 은비는 수반이와 함께 혼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활동지 ①

나쁜 놈 리스트

기억에 나는 나쁜 놈 리스트를 자유롭게 적어요.
(내 주변 친구, 주위 친구, 남에 들었던 친구, 책속의 등장인물,
드라마 등장인물, 상상속의 나쁜 친구 목록 모두 가능)

학년 반 번

이름 :

2015 년 월 일

순서	나쁜 놈 리스트	이 유	해 결 법
1			
2			
3			
4			



나쁜 놈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8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12일 (토요일) 10:00~ 12:00	1. 인사하고 서약서 2. 힐링스토리 「이런 친구들은 어때?」 스토리텔링하기 -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경험을 나누며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3. 힐링스토리 질문하고 토론하기 4. 도서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읽기 - 누구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 받은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 그 친구가 준 고통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있는지 살펴보았다. -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했다. 4. 나쁜 놈 파이 만들기 -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다' 속담 외에도 여러 경험을 이야기 하며 정말 미운 놈을 위한 파이를 만들어 먹었다.			총 9 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하는 동안 학생들은 '맞아,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우리 반에 누구는요~'하며 공감함을 표시하였다. 또래집단이 중요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나쁜 놈 목록을 2명 이상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은 친구들 이었으며 관계 좋지 않은 친구들은 꼭 채워 목록을 작성하였다. 파이를 만드는 동안 무엇을 넣을지 의견을 전하며 서로 웃음으로 화답하고 즐거워 했다. 그리고 나쁜 놈이란 파이를 못 먹겠다는 친구는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했다. 대인관계의 요소 중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친근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여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다 가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알찬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학생들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시부터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이 필요없 음을 느껴 쿠폰을 쓰지 않기로 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나만의 개성을 찾아	차시	9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다. ○ 나만의 개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 도서 : 「빨강이 어때서 / 사토 신 / 내인생의책/ 2012」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활동지, 석고붕대, 미지근한 물, 가위, 아크릴물감, 유성펜, 받침대 외 꾸미기 재료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친구를 잘 살펴보았나요? 친구가 어떤 이유로 싫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내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아직 못 해 보았다면, 이번 주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나만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하는 날입니다. ◎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읽기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민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 민수와 같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성현이와 같이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내가 성현이처럼 뭐든지 잘 해서, 선생님께, 부모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 모든 친구들이 성현이처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 내가 꼭 성현이와 같아야 할까요? - 민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개 (60')	「빨강이 어때서」 제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 도서 「빨강이 어때서」읽기 - 빨강이는 가족과 털색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 빨강이의 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빨강이의 털 색을 바꾸고 싶어 하였나요? - 내가 만약 빨강이처럼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 혹시 빨강이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나요? - 빨강이가 집을 나온 이유(가족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누군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 남과 다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모두가 다 똑같다면, 어떨 것 같나요? - 남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나의 손》 만들기 - 지난주와 다른 친구와 짝이 되어 주세요. - 친구의 손을 잡고, 내 손과 비교하여 보세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 석고봉대를 적당한 크기로 오리도록 합니다. - 한 동안 고정되어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 손 모양으로 손을 편히 두고, 손에 석고봉대를 감싸 줍니다. - 「빨강이 어때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손이 어느 정도 굳혀진 뒤, 작업을 합니다. - 준비물을 가지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손으로 꾸밉니다. - 무엇으로 《나의 손》을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차별화를 두었는지 발표합니다. - 완성한 된 예쁜 《나의 손》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한 뒤, 이 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발표하세요.	
정리 (10')	◎ 힐링스토리하부르타에 대해 의견나누기 ◎ 나의 손에 대한 느낌 나누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자아존중감 - 자신감】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1학년 2반의 담임선생님은 오늘도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담임선생님의 표정이 어쩔 땐 웃고, 어쩔 땐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넘기던 담임선생님의 손이 한 학생의 일기에서 멈춥니다. 어디 그 내용을 볼까요?

<민수의 일기 2013. 08. 07>

‘성현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다. 어느 것 하나 못 하는 것이 없는 성현이가 난 부럽기만 하다. 성현이에 비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친구들에게 인기도 없는 거 같고, 담임선생님도 성현이만 칭찬한다. 엄마가 어젯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넌 왜 성현이처럼 못하니?”

“어휴, 성현이의 성적 좀 봐라.”

“컴퓨터 안 꺼?”

물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결과는 성현이 보다 못하는지 모르겠다.

“성현이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한다더라. 너도 좀 보고 배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러다 보니 난 성현이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으면 괜스레 불안해지거나 화가 난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역시 안 되는 걸까?’ 난 성현이가 너무너무 싫다.

이 일기는 요즘 예민해지고 자주 울적해지는 민수의 일기입니다. 담임선생님은 민수의 일기를 점점 더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갈수록 질투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담임선생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곤 펜을 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일기장 밑에 무엇을 적습니다.

‘선생님은 성현이랑 민수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 성현이는 성현대로 민수는 민수대로 각기 잘하는 것이 있는 것뿐이야. 그러므로 성현이도 민수도 선생님한테 똑같은 제자야. 우리 민수는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힘내렴.’

‘참 잘했어요.’ 도장을 꼭 찍어주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담임선생님입니다.

다음 날도 민수는 침울합니다. 또 성현이가 바른 어린이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돌려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일기장을 건네는 담임선생님의 표정이 웬지 모르게 환해 보입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하여, 자리에 돌아가 일기장에 항상 적히는 글씨를 봅니다. 담임선생님의 글씨를 본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옆의 성현이가 민수를 보고 친근하게 말을 거네요?

“민수야! 오늘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을래? 우리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 데려 오겠거든!”

“진짜?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앗싸~”

제일 친한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덩달아 성현이도 기뻐합니다. 성현이가 담임선생님을 쳐다봅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런 민수를 보고 살며시 윙크하며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9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9월 19일 (토요일) 10:00~ 12:00	1. 인사하기 - 개성이란 무엇이며 특별한 개성을 가진 위인을 이야기로 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2. 힐링스토리 「절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스토리텔링 - 비교는 누구라도 경험했을 내용의 힐링스토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실감나게 스토리텔링하였다. 3.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4. 나의 손 만들기 - 잠시 쉬는 시간의 학생의 도움으로 조별로 준비물을 챙겼다. - 샘플을 보여주고 나름의 멋진 손 만들기 작업이 들어갔다. 5. 빨강이 어때서 읽어줌 - 석고가 마르는 동안 읽어주며 퀴즈를 내어 집중하도록 하였다. 6. 다음 차시 안내 및 정리			총 11명
자체평가	살아가면서 성장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 있다. 나 자신을 옳게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생은 힐링스토리를 들으며 속 시원하게 비밀이야기들이 오갔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슴없이 친해졌을까 싶을 정도로 거리낌 없었다. 나이 손 만들기에서 학생들은 금과 은으로 꾸며지는 손을 만들며 석고라 손에 붙고 불편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멋진 손을 보며 친구들도 뿌듯함을 느끼는 듯했다. 언제부터인지 한 명의 학생의 질문과 행동이 부쩍 성장했다. 친구들이 변화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음을 관찰하게 되어 자아성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했다.			
기타 의견	차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힐링스토리를 수업 도중에 자기와 맞지 않아서 부작용 나는 이야기 ‘컨닝은 나빠’,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너무 귀찮아요.’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 주었다.			

9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걱정은 나누면 반	차시	10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자신의 걱정거리를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친구의 걱정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눈만 감으면 게임이 보여요」 「예뻐질 테야!!」 ▶ 도서 : 「작은 걱정 / 안느 에르보 / 중앙출판사/ 2002」 ▶ 도서 : 「내 꼬리 / 조수경 / 한솔수북/ 2008」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활동지, 종이액자, 아크릴물감, 붓, 물티슈, 활동지, 고민상자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나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하며 보냈나요? ㉠ 힐링스토리 「눈만 감으면 게임이 보여요」, 「예뻐질테야!!」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유지처럼 외모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 서윤이는 어떤 성격의 아이일까요? - 외모 외에도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 본 적이 있나요? -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 궁금한 질문을 적어 봅니다. - 그 중 베스트 질문을 선택하고 질문을 통해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 나의 고민을 적어 상자에 넣기				♡자신의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작성하여 고민 상자에 넣도록 한다.
전개 (60')	㉠ 도서 「작은 걱정」 읽기 - 악취발드는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 악취발드는 고민을 떨치기 위해 어떻게 하였나요? - 악취발드가 고민을 떨치기 위해 하였던 행동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요? - 우리 친구의 고민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씩 나와서 고민 상자에서 고민거리를 꺼내서 발표한 뒤, 그 고민거리를 잘 가지고 있어 주세요. ㉡ 도서 「문제가 생겼어요!」 읽기 - 책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 주인공인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 엄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친구의 고민을 잘 가지고 있나요? -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지 발표해주세요. -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 친구들의 조언을 듣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의견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 《나의 문제》 추상화 - 고민 쪽지를 다른 친구들이 뽑습니다. - 고민하여 적어 냈던 문제를 추상화로 그려 보세요. 그러면서 뽑은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고민을 종이 상자 위에 거침없이 내려놓게 합니다. - 추상화로 표현한 《나의 고민》의 제목을 발표하여 봅니다. - 나와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며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하기 ◎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하고 뒷정리하기 - 다음 시간에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직업, 롤모델)의 사진을 가져오세요.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습관 - 컴퓨터(게임중독)】

눈만 감으면 게임이 보여요!!!

재현이는 수업시간에 갑자기 없어져 반을 발칵 뒤집어 놓곤 한다. 월요일에도 3교시 체육 시간을 마치고 같은 반 아이들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복도에서는 왁자지껄 물을 마시느라 분주했다. 종이 치고도 10분이 지나서야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뒷줄의 재현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체육시간 마치고 재현이랑 같이 교실로 온 친구 누구니?”

“저랑 운동장에서 같이 걸어오긴 했는데 교실까지 같이 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물을 먹고 들어왔어요.”

민규가 대답했다. 친구가 많지 않은 재현이지만 민규와는 가끔 집에 가기도 하고 다른 반 아이들보다는 소통을 하는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은 재현이를 찾느라 여기저기에 연락을 하였다. 보건실과 도서실에도 전화를 하여 6학년 3반 재현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갑자기 불쑥 불쑥 잘 끼어드는 수영이가 선생님께 말했다.

“선생님 재현이 PC방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PC방 간다고 돈도 가지고 왔다고 자랑했어요.”

선생님은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는 잠시 다른 선생님께 반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보았다. PC방 건물에 들어서자 PC방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 재현이를 보았다. 담임선생님은 재현이 손을 잡고 가려하였으나 재현이는 손을 뿌리치며 학교에 가시 싫다고 말하였다. 담임선생님은 할 수 없이 강제로 재현이를 데리고 학교로 돌아왔다. 담임선생님은 방과 후에 재현이를 남아 있으라고 했다. 오후 수업시간 내내 재현이는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과 재현이는 마주 앉았다. 그리고 선생님은 재현이 손을 꼬옥 잡고 재현이에게 물었다.

“재현아 수업시간에 왜 PC방에 갔니?”

“수업시간 전 재미없어요. 그냥 칠판이 게임 모니터 같고 그 안에서 게임이 선하게 그려져요”

재현이네는 맞벌이 가족이다.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기 때문에 재현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누나가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이라 동생을 돌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엄마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간식 챙겨 먹을 용돈을 주는 것으로 재현이는 PC방을 다니기 시작한 듯하다. 담임선생님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어머니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어머님, 재현이가 게임 중독이 심각.. ”

“아, 저도 알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담임으로써 이걸 도저히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 아이예요. 제가 훔칠 테니까 더 이상 이런 일로 부르지 마세요! 시간 낭비했네. 정말!”

재현이 부모님은 오히려 담임선생님에게 큰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 부모님에게 끌려가는 재현이 표정은 그저 담담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듯이, 그런 재현이를 보는 선생님은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건강 - 외모】

예뻐질 테야!

“야! 자꾸 눈을 감으면 어떡해! 눈을 떠야 렌즈가 들어갈 거 아냐.”

“내가 감고 싶어서 감는 게 아니라 눈이 자꾸 감기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왼손으로 눈꺼풀을 잡고 넣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유지가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렌즈를 올려놓더니 능숙한 솜씨로 눈에 넣었어. 서윤이의 눈엔 눈에 무언가를 넣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유지가 오히려 신기하게 보였어. 심지어 거울도 안 보고 렌즈를 넣었거든. 여기저기서 우와~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려. 서윤이는 유지의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이 못 마땅했어.

“알겠어! 다시 해볼게! 먼저 렌즈를 집게손가락에 올리고, 왼손으로 눈꺼풀을 잡고!”

이제 서윤이의 집게손가락 위에 살포시 얹어져 있는 렌즈만 눈에 넣으면 되는데, 렌즈가 눈으로 다가올수록 또 다시 눈이 감기려고 해.

“서윤아~ 눈 감으면 안 돼!!”

갑자기 들려오는 영서의 목소리에 자꾸만 감기려는 눈을 부릅떴어!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렌즈가 눈에 쏙 들어 갔어. 눈에 뭔가 쓰여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점심시간 내내 씨름했던 렌즈를 드디어 꺾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할 정도였어.

“어머 서윤아, 눈동자가 엄청 커지고 선명해 졌어”

“우와! 서윤아 갈색 눈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서윤이의 눈을 본 친구들의 이어지는 칭찬에 서윤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어. 지금까지의 수고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 자기가 봐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천배는 예뻐 보였거든.

마침, 5교시가 시작이 됐어. 그런데, 칠판을 보는 내내 눈이 뻑뻑하고, 불편해서 자꾸만 눈으로 손이 갔어. 혹시 눈에 이상 생긴 건 아닌지 거울로 눈을 확인하고 앞을 보는데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

“박서윤! 눈이 불편하니? 아까부터 왜 자꾸 눈을 만지고 그래?”

혹시라도 써클렌즈를 낀 걸 들킬까봐 눈을 피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눈이 반짝 빛났어.

“너 선생님 다시 봐봐. 눈이 뭔가 이상한데? 너 설마 써클 렌즈 꺾니?”

내 눈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정곡을 찔렀어. 깜짝 놀라서 헛숨을 들이키는데, 선생님이 들고 있던 분필을 내려놓으시곤 교탁에 서셨어.

“애들아~ 써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눈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단다. 너희들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력이 불안정해. 특히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 사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단다. 서윤이 말고도 렌즈를 착용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눈에서 빼도록 해라!”

그리고는 다시 수업을 시작하셨어. 서윤이는 다시 거울을 봤어. 또렷하고 큰 눈이 거울에 비쳤어. 지금 당장 예뻐 보이느냐? 아니면 앞으로의 눈을 생각하느냐?

“그래도 지금 당장 예쁘니까 한 달만 착용할까?” 아니야! 앞으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 쓰면 어떡하지? 그건 더 싫은데?” 서윤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

10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10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눈만 감으면 게임이 보여요」, 「예뻐질테야!!」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 2주 만에 만나 질문하부르타만 접목하였다. 3. 도서 「작은 걱정」 읽기 4. 나의 고민을 적어 상자에 넣기 - 나의 지금의 고민을 쪽지에 적어 상자에 넣었다. 5. 《나의 고민》 추상화 - 고민 쪽지를 뽑고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지 생각하며 추상화를 그렸다. 6. 친구의 고민 해결하기 7. 다음 차시 안내			총 10명
자체평가	10차시에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의 고민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나와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수업시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후 및 휴일로 인해 2주 뒤에 만나 수업의 흐름이 끊겼다. 질문하부르타에도 낯선 친구들처럼 서먹서먹하였으며 또한 참관도 하여 친구들과의 라포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이끌어간 것이어서 뒤늦게 후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쪽지에 솔직하게 적어냈으며 다른 친구의 고민을 자신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혹은 자세하게 해결해주었다. 고민을 생각하며 그린 추상화를 그리며 친구들은 ‘웬지 속이 시원하네.’ 하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고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크릴 물감을 모두 쓰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에 대해 고민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개방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친구들 나름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많은 고민들 중에 여자 친구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적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용기 내어 고백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미래의 내 모습을 찾았어요!	차시	11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무엇이 하고 싶은지 생각해볼 수 있다.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선정 자료	▶힐링스토리 : 「나의 꿈을 찾아서」 ▶도서 : 「시크릿/ 론다 번/ 살림Biz/ 2007」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활동지, 활동지 자아성장검사지, 시크릿 ppt자료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자신의 고민을 잘 해결 하였나요? ◎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 힐링스토리의 주인공 세희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 세희처럼 꿈 때문에 고민을 하여 본 적이 있나요? - 세희처럼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고민인가요? - 세희와 달리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가요? - 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 하부르타 - 질문하부르타 5개의 질문을 적어봅니다. - 의미 있는 좋은 질문을 하나 선택하여 의견을 나눕니다.				
전개 (60')	◎ 도서 「시크릿」 ppt 소개하기 - 자음퀴즈로 마음열기 문제를 내도록 합니다. - 뉴턴, 링컨, 에디슨,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플라톤 이들에게는 모두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시크릿도서를 2화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소개하려합니다. -ppt로 시크릿에서 전하고자 하는 긍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나의 기분전환 목록을 적기 - 활동지 안에 기분이 나쁘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곧 현실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감사해요 목록 적기 -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나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 《나의 롤모델》 그리기 - 무엇이 되고 싶나요? - 그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에는 누가 있나요? -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롤모델)의 사진을 보고 캐리커처를 만들어 보세요. - 완성한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을 소개하여 주세요. -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하나요? -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그 사람을 무엇을 닮고 싶은가요? -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계획도 발표하여 봅시다. ◎ 자아성장검사 사후검사 실시 - 1차시처럼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정리 (10')	◎ 이번 차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기 ◎ 시크릿에 대한 의견 나누기 ◎ 이 프로그램을 마치며, 어떤 점을 배웠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꿈 - 진로(멘토)】

나의 꿈을 찾아서

<세희의 일기장. X월 XX일 맑음>

체조 선수 손연재는 6살 때부터 체조 연습을 했다고 한다. 김연아 선수는 5살에 피겨 스케이팅 화를 처음 신었다고 한다.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박지성 선수는 6학년 때에는 전국 대회에서 세류초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해 5회 차범근 축구 상을 받을 정도로 축구에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박지성 선수도 축구선수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평발을 지녔지만, 경기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닌다 하여 ‘산소탱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쨌건 다들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뭘까? 부럽기만 하다.

난 아무런 재능이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고, 공부를 왜 그리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부! 공부! 공부! 난 사실 공부가 진절머리가 난다. 5년이나 다닌 학원도 이제 징그러워 새로운 것을 봐도 싫증만 날 뿐이다.

그런데 친구 영주는 아무 때나 친구들에게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이번엔 금상을 받았다. 너무 부러워 영어를 한 번 해볼까 하더라도 영주처럼 발음도 잘 안되고 단어 외우는 것도 못하겠다.

또 친구 지원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집중해서 잘 푼다. ‘수학이 어렵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수학이 재밌다.’는 이상한 말만 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른다. 랩도 놀라운 정도로 잘하고 춤도 잘 춘다. 수학자가 되어 노래도 하고 싶다는 지원이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난 너무 초라해진다. 그리고 생각해본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출 수 있을까?’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타고 난 것도 없고 공부도 책도 다 싫다. 그러면 나는 미래에 어떤 꿈을 생각해야 할까?’

부모님과 선생님은 꿈이 없는 나를 이상하게 본다.

“너, 정말 꿈이 없어?”

“아니 넌,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거 없어? 너는 알 거 아니야?” 라고 묻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꼭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본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이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단다. 나의 소질을 찾아내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면 더욱 좋겠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연습해서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힘을 보태 주세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랍니다.”

오늘 집에서 선생님께 하신 말로 생각나는 대로 시를 써보았다. 그리고 그 시를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셨다.

“어머머, 어머머!! 이 시를 네가 쓴 거니? 어머니 세상에, 꼬마 시인이 여기 있었구나?” 하 시면서 내 머리를 마구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더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나도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걸까? 그렇다면, 나도 유명인들처럼 재능이 있는 걸까? 암튼, 시를 더 쓰고 싶어졌다. 나를 발견한 즐거운 오늘의 일기 끝.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나의 꿈을 찾아서

이 름 :

질문①

질문②

질문③

질문④

나의 기분전환 목록

- 1.
- 2.
- 3.
- 4.



정말 정말 감사해요 ~

1. _____ 감사해요.
2. _____ 감사해요.
3. _____ 감사해요.
4. _____ 감사해요.
5. _____ 감사해요.



1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17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 하부르타 3. 도서 「시크릿」 ppt 소개하기 4. 나의 기분전환 목록을 적기 5. 감사해요 목록 적기 6. 나의 롤모델 그리기 7. 자아성장검사 사후검사 실시 8. 다음차시 안내			총 11명
자체평가	힐링스토리 ‘나의 꿈을 찾아서’를 스토리텔링한 후 하부르타를 실시하였다. ‘세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결국 세희는 꿈을 이루었을까? 왜 세희와 엄마는 세희가 꿈이 없는 걸 이상하게 봤을까? 세희가 시를 안 썼다면 세희는 무엇을 했을까? 꿈은 어떤 식으로 이뤄야 할까?’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질문의 핵심을 뽑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크릿을 2회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자아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ppt로 진행하였는데 적극적인 학생들의 수업에 흥이 절로 났다. 학생들의 기분전환 목록은 가족과 혹은 친구와의 여행하거나 놀았던 즐거운 추억이 주를 이루었고 취미와 미래를 상상하는 등의 의견이 취합되었는데 학생들의 기분도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10차시 자아성장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자아성장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2주 동안 학생들과 수업의 흐름을 깨진 거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과 롤모델을 그리고 발표하였는데 나를 자신을 찾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들이 엿보였다. 씩씩하게 인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이 마무리되어 뿌듯했다.			
기타 의견	이번 차시는 서먹서먹하지 않고 학생들이 살갑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차시	12	시간	120분
세부 목표	○ 함께 한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다.				
선정 자료	▶ 힐링스토리 :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 도서 : 「시크릿/ 론다 번/ 살림Biz/ 2007」				
준비물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활동지, 시크릿 ppt, 프로그램 소감문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5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성실히 참여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활동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마련해서 나눠 갖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 힐링스토리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스토리텔링 - 성희는 무엇 때문에 '아인이처럼 분홍색 옷을 입을 걸 그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과 머리 해볼 걸 그랬나.'라고 생각했나요? - 성희처럼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 해 본 적이 있나요? - 무엇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을까요? - 그림을 잘 그리는 성희처럼 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힐링스토리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스토리텔링 - 질문하부르타를 작성합니다. - 그 중 베스트 질문으로 팀별 짝토론을 진행합니다.				
전개 (60')	◎ 시크릿 소개하기 - 자음퀴즈로 지난 수업을 복습합니다. - ppt로 11차시에 이어 자세하게 시크릿을 풀어줍니다. ◎ 나의 좌우명 적기 - 나를 깨우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좌우명을 생각해봅니다. - 좌우명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 나의 힘이 되는 말 적기 - 나에게 힘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 학생들에게 발표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일게 합니다. ◎ 자아성장프로그램 1차시 ~12차시 동영상 시청 ◎ 자아성장프로그램 소감문 작성 ◎ 프로그램 전체 책거리				
정리 (10')	◎ 전체프로그램 느낌 나누기				

【상황별 주제 및 상황 : 나 -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성희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오늘따라 이 옷을 입어도 저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5학년이 되어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 날이거든요.

삼삼오오 줄을 맞춰 모인 운동장, 성희는 반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아인이처럼 분홍색 옷을 입을 걸 그랬나?’

오늘 반대표로 장기자랑에 나가기로 한 주아는 소녀그룹처럼 앞머리를 사과 머리로 올리고 왔습니다.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과 머리 해볼 걸 그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시끌벅적 왁자지껄~

담임선생님께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차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성희의 관심은 오로지 장기자랑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장기자랑 시간, 아이들은 진짜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춤추기 시작했고, 성희는 그 시간 내내 부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모든 저녁 시간 행사가 마쳐지고, 숙소에 들어온 친구들과 성희는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안 자면 벌칙 받을까 봐 불도 켜졌습니다.

“쿵쿵…….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더 분위기 있다!”

“그렇지? 그래도 목소리 안 들리게 우리 좀 작게 이야기해야 될 거 같아!”

“아까 교관 봤어? 무섭긴 정말로 무서운데 엄청나게 잘 생긴 거 같아!”

“누구? 파란색 옷 입은 사람?”

“맞아 목소리 진짜 좋아!”

“키키키. 어쨌든 그 검은 모자 교관은 내 것이야! 짬!”

영동이 아인의 한마디에 다들 소리쳤습니다.

“뭐? 뭐야 진짜 으하하~~” “어우, 아! 그건 진짜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잠이 들어버리고, 성희와 오늘 장기자랑 시상 일등이 되어 반에 영웅이 된 주아만 남았습니다. 성희는 주아에게 내심 부러웠던 속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주아야~ 넌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 그거 진짜 부러워.”

“에에? 미술작품만 그랬다 하면, 칭찬받는 우리 반 예술가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

“에이, 왜 그래.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난 네가 부러워. 진짜 멋져! 예술가 같아!”

2박 3일 즐거운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성희는 여느 때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곤 또 다른 성희에게 말을 합니다.

“김성희~ 너는 정말 멋져!!!”

“김성희~ 지각하겠다!! 빨리빨리~~!!”

“네 엄마!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딸 김성희 나갑니다.”

준비를 마치고, 뛰어나가는 성희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가볍습니다.



활동지 ①

힐링스토리 질문하부르타

너는 너 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이 름 :

질문①

질문②

질문③

질문④

나의 좌우명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1. 나는 _____ 이다.
2. 나는 _____ 이다.
3. 나는 _____ 이다.
4. 나는 _____ 이다.
5. 나는 _____ 이다.





활동지 ②

힐링스토리프로그램 소감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 활동을 한 후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2.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3.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친구관계에 있어 달라진 생각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1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들리니? 내 마음이 자라는 소리가?		
	강 사	허 정 희		
	대 상	초등 3학년~6학년		
	활동기간	7월 18일 ~ 10월 24일	총 차시	12
	장 소	초지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10월 24일 (토요일) 10:00~ 12:00	1. 힐링스토리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멋지다!」 스토리텔링 2. 힐링스토리 하부르타 3. 시크릿소개하기 4. 나의 좌우명 적기 5. 나의 힘이 되는 말 적기 6. 자아성장프로그램 1차시 ~ 12차시 동영상 시청 7. 자아성장프로그램 설문지 작성 8. 프로그램 전체 책거리			총 11명
자체평가	마지막 수업이다. 힐링스토리 ‘너는 너 다울 때가 멋지다’를 스토리텔링하고 하부르타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12차시에 걸쳐 개인별로 적어도 100개의 질문 이상을 스스로 냈으며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었다. 질문은 사고력도 깊어지고 자발성을 띠기에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거라 확신한다. 자아성장검사 사전·사후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총 점수가 평균 14.5점 성장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대인관계의 4가지 영역 중에도 자기개방과 대인관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3~6학년의 수준의 차이가 다른 친구들이 함께 한 수업이었다. 특히 6명의 학생이 놀라보게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자아성장검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소감문을 살펴보면,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미있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되었다. 내 마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느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 친근감이 생긴 거 같다. 나에 대해서 뭔가 풀어놓았던 거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다.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좀 더 밝아졌다. 사교성이 생기고 생활에 활기가 있어졌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알찬 수업을 만들어준 학생들에게 고맙았다. 학생들로 인하여 오히려 힘이 받은 시간이었으며 올곧게 성장할 거라 믿는다.			
기타 의견	12차시 동안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미쁘게 성장해준 학생들이 자랑스러웠다.			